

# 발 간 사

UN은 2003년을 물의 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절감한 데에 있습니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1995년에 연간 1인당 활용가능한 수량이 1472m<sup>3</sup>로서 물부족국가에 해당하며, 2005년의 수량은 1258m<sup>3</sup>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부족 현상은 인구증가에 따른 양적 부족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물오염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전망을 감안할 때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의 수립과 체계적인 법제 및 이론의 정립은 초미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과 관련된 법률은 15개 이상이나 되고 정책들도 조정되지 아니한 채 수립·집행되고 있어 상호충돌이 발생하는 등 현행 물관리제도는 반드시 적절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2월 초에 우리 환경법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아래 환경부와 공동으로 '물정책과 법'에 관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에 특집으로 실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주옥과 같은 학회발표 및 연구논문 11편을 곁들여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주옥과 같은 훌륭한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모든 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결과물은 우리 환경법학회가 심각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역량을 익히 들어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6년 이상의 장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환경법학회는 그 활동과 역량에서 어느 학회를 넘가하는 중심된 학회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법연구 제25권 2호부터는 판형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바꾸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지를 4·6배판으로 발간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회지 발간의 추세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학회지의 판형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도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 학회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3. 12. 15.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석종현